

불자 세상보기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현재 한국영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2012년 상반기 100만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는 무려 20여편이나 된다.

이제 한국영화는 할리우드와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스펙터클장면, 첨단 특수효과를 다 구비함에 따라 할리우드 영화의 서사적, 기술적 완성도를 구사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영화는 전쟁영화, 스포츠영화, 다큐멘터리, 재난영화, 법정영화, 도둑영화, 등 모든 장르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 영화의 신장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꼴을 받는 게 사실이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리메이크 판권이 해외에

팔려나간 것이다. 안병기의 <폰>, 박찬욱의 <올드 보이>, 박재용의 <엽기적인 그녀>, 김지운의 <장화홍련> 등이 해외에 팔려 리메이크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쓰라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영화산업은 '사상누각', 즉 모래위에 지은 집이어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태에 사실 놓여있다.

영화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영화인들의 생계문제다. 대기업 투자 이후 자본덕에 영화는 많이 생산되지만 그 몫이 영화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산업을 유지하는 필수요소인 노동력에 대한 관리 소홀은 결국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한 영화의 스크린 독점이 심한 것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극장문화와 관객문화의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아무리 경제가 발달해도 민도가 낮아지는 것은 순전히 이런 오락에만

걸들여진 관객의 습관 때문이다.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영화가 국내에서 푸대접받는 이유를 영화정책과 배급, 상영제도의 불합리에 있다고 종종 푸념하곤 했다.

같은 국제적 명성을 누리는 봉준호, 박찬욱, 김지운, 이창동의 경우는 상업성이 강해서 살아남지만 임권택, 김기

중흥기 맞은 한국영화 이면은 '사상누각' 상태 불교적 스토리텔링이 불교영화 활성화 과제

덕, 홍상수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이다.

끝으로 한국영화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한 소재개발 측면에서 불교소재영화에 대해 생각해 본다. 김기덕 감독의 베니스 그랑프리 수상작 <피에타>는 어떤 영화인가. 이 작품의 포스터를 보면 배우 조민수가 이진진을 안고 흐느끼는

장면을 연출해냈다.

성모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을 패러디한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신경숙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에서 말한 바로 그 이미지다. 자식을 사랑하며 한평생 희생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자식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바로 그것이다.

바이블의 유산은 문학, 미술, 전 예술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마치 기독교 소재 영화처럼 나타난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인류 공통의 공감대이다. 불경 소재 문학, 미술 등 영화에 영향을 주는 소재의 개발과 창작이 불교영화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역시 불교를 정면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불교영화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불교소재 활성화는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영화의 세계화를 향해 더없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社說

불교 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

새학기 불교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8월 20일 선정 발표한 '5세 누리과정 인성교육 실천 우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총 140곳 중 가톨릭·개신교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11곳인 반면 불교계 유치원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누리과정 도입이 초창기인 만큼 규모나 조직면에서 체계를 갖춘 국공립 기관들이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진각복지재단서 운영 중인 혜정어린이집은 자연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유아생활영어, 부모생활교육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서울 신도림 반야어린이집도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로 개·보수를 마치고 시설안전교육, 배움과 협동, 다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불교계에도 전국 사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재정면에서 열악하다보니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현실타당만 할 때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을 모아 어린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관심을 보여야 한다. 종단이 팔을 걷어부쳐 우수 발굴 사례를 수집하고 각 불교 어린이집에 전화해 인성교육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불교생협 불씨 다시 한번 지피자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정부 역시 지난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했고,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에는 의료, 금융, 소비자 등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지만, 특히 소비자 운동인 생활협동조합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주요 생협의 친환경농식품 공급액은 국내 식품 시장규모의 0.5%, 친환경농식품 시장의 13%에 달하며, 참여 생산자 수도 6천 농가에 이른다.

이런 호재에도 불교생협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야심차게 시작한 불교생협연합회 준비위원회는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찰 생협매장도 답보 상태다.

대한불교청년회의 연꽃 생협도 활발히 운영되는 편이 아니다.

인드라마 생협만이 깨끗이 버티고 있다. 인드라마 생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인드라마생협공동체가 10여 년을 추진해온 귀농운동의 역할이 크다. 귀농학교로 배출된 농부들이 생산자로 참여하고 있고 이들 믿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도 생겨났다.

꺼져가는 불교생협의 불씨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활동가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그 중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사찰들을 중심으로 '공존공생'의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다. 농촌과 자연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생협운동은 '불이(不二)'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부대중 칼럼



정성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전신계사 도감

얼마전 우리 정부는 북한에 수해지원을 제안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쌀과 중장비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밀가루와 라면을 주겠다고 하면서 대북지원은 무산됐다.

이런 MB 대북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다. 정말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쯤 되면 MB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 참패로 끝나버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북지원은 수해민을 돕겠다는 단순한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색된 대북관계를 풀기 위한 열쇠가 바로 대북 지원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다.

가장 큰 손실은 경제 분야다. 북한을 적이라고 간주하며 적대시 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의 큰 시장을 잃었다. 물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피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좀더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을 보자. 그간 남북한 경제 국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금강산 관광 사업자들이다. 이에 투자했던 민간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올라 가정이 파탄 났고 자살을 한 이들도 있다고 한다. 현대아산 직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들어와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얼마전 평양에 다녀온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평양 시내 자동차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중국 사업자들이 들어와 평양을 점령한 것이다.

또 나진 선봉까지 중국인들이 진출해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대북지원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 중국이 북한 경제를 장악해 버린

것이다. 폰트 아끼려다 전체를 잃는 격이다. 유연성이 부족한 MB정부의 편향된 외교 정책이 낳은 결과다.

물론 경제적 손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인으로서 문화 교류와 발전이 중단된 것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미래 통일 국가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서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남북 정책은 점점 퇴보하고만 있다.

차기 정부 거시적 관점에서 대북 전문가 배출해야 불교계, 문화정책 등 통해 통일운동 밑거름 되길

한반도 평화는 세계평화

한 대북 전문가를 길러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보시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불교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꾸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와 교육 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간단한 병원에서 짓고 치과 산부인과 정도는 진료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불교계 인력들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래서 불교가 통일 한국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Advertisement for '4 rights for practitioners'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ncludes a large character '命' (Life) and lists 12 books on palmistry, health, and Buddhism. Contact info: 031)768-8414.

Advertisement for 'Modern Buddhist Newspaper' (현대불교신문사) with a nationwide branch guide. Includes a globe graphic and lists branches in Busan, Daegu, Gwangju, Jeonbuk, Yeosu, and Gyeongnam. Contact info: 051)632-0064.